

경제

여수산단 '태양광산업'이 뜬다

LG·한화 등 대기업 진출... 신성장동력 전초기지 리모델링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석유화학업종을 넘어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태양광산업의 전초기지로 리모델링하고 있다.

6일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에 따르면 LG·한화 등 여수산단 내 입주 대기업들이 태양광산업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특히 태양전지의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태양전지에서 빛에너지로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원료) 사업 진출이 활발하다. 이를 통해 신성장동력 조기 정착은 물론 그룹 내 태양광 산업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LG화학은 지난 2일 태양광산업의 핵심부품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사업에 진출한다고 선언했다.

여수공장에 4910억원을 투자해 연간 5000t 규모의 폴리실리콘 생산공장을 지어 이르면 2013년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LG화학의 폴리실리콘 진출은 LG 그룹의 태양광산업 수직계열화 완성을 의미한다. LG실트론은 잉곳과 웨이퍼, LG전자는 태양전지(셀)과 모듈을 생산해왔다.

앞서 지난 4월 한화그룹도 1조원을 투자해 폴리실리콘 제조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계획을 내놨다.

내년 초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에 연간 생산 1만t 규모의 폴리실리콘 공장을 착공해 2013년 하반기부터는 본격 가동한다는 것이다. 공장이 완공되면 2014년부터 연간 5000억원 가량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한화그룹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개발하고 있는 태양광산업 분야에서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태양전지(셀)·모듈-발전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수직계열화를 완성하게 된다.

여수산단에 대한 대기업들의 관심은 태양전지의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석유화학공장 운전경험이 있는 여수공장에 갖추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석유화학공장 운전경험이 있는 여수공장에 폴리실리콘 생산설비를 갖춰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여수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성·S-oil·웅진·현대중공업 등도 태양광산업 진출을 선언했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태양광산업에 앞다퉈 진출하는 것은 그동안 수종산업 역할을 한 반도체와 LCD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 모멘텀이 떨어졌고, 이를 대체할 수종산업으로 태양광산업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내놓은 '2011년 태양광산업 실적 예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산업 제조업의 매출 실적은 지난해(5조9000억원)의 배 가량인 10조4265억원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산업 매출은 2007년 4400억원, 2008년 1조5400억원, 2009년 2조3700억원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밖에 여수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성·S-oil·웅진·현대중공업 등도 태양광산업 진출을 선언했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태양광산업에 앞다퉈 진출하는 것은 그동안 수종산업 역할을 한 반도체와 LCD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 모멘텀이 떨어졌고, 이를 대체할 수종산업으로 태양광산업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여수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성·S-oil·웅진·현대중공업 등도 태양광산업 진출을 선언했다.



'001통큰 이벤트' KT는 001통큰요금제 출시 4주년 및 001통큰라이트 요금제 출시 기념으로 통큰요금제 가입고객 모두에게 국제통화 시간을 두 배로 늘려 제공하는 '001통큰 더~큰 Double 이벤트'를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점검

광주고용노동청, 광주·전남 48개 사업장

광주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7일부터 2주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광주·전남지역 48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이다.

특히 건설현장은 추락 붕괴에 의한 재해를, 제조업은 가압 재해, 서비스업은 넘어짐 재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광주고용노동청은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송기진 광주은행장이 6일 국군함평병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농어업인 소규모 창업 지원 신청

aT 광주전남지사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는 오는 17일까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창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업체 창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이

며, 규모는 총 48억원으로 업체당 800만원 지원한다.

조건은 금리 연 3%로 융자 80%, 자부담 20%다. 대출기간은 시설의 경우 10년 이내(3년 거치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2년 이내이다. 문의 062-940-7022.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은행, 현충일 국군함평병원에 위문금

광주은행은 제56회 현충일을 맞아 6일 오전 광주공원 현충탑에서 참배의식을 통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뜻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정신을 되새겼다.

이어 송기진 행장은 함평군 해보면에 위치한 국군함평병원을 방문해 위문금 300만원을 전달하고 입원 치료 중인 국군장병을 위로하는 등 조국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매년 현충일을 앞두고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 전개와 함께 지역에 소재하는 국군병원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7월부터 농수산물 판매자 실명제

광주 서부농수산물시장

광주시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다음 달 1일부터 '농수산물 판매자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농수산물 판매자 실명제란 서부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에 판매자(중도매인)의 소속 법인과 판매자 이름, 연락처 및 소비자 유의 사항이 표시된 스티커를 모든 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는 것이다.

소비자 불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판매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미에서 도입된다.

지난해 전국 도매시장 평가에서 우수 도매시장으로 선정돼 정부 표창을 받은 서부도매시장은 현재 400여명의 중도매인이 300여 품목의 농수산물물을 취급하고 있다.

서부도매시장 관계자는 "농수산물 판매자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품질과 중량 등을 정확히 확인해 판매할 수 있고, 농수산물 홍보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다문화가정 근로장려금 혜택

광주국세청 적극 안내... 7억6500만원 신청

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 5월 다문화가정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적극 안내해 많은 다문화가정에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980여 다문화가정에서 7억65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다문화 가정은 물론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정세정 실천 과제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갖추고도 신청을 하지 못해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적으로 적극 안내를 통해 보다 많은 신청을 하도록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다문화가정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갖추고도 신청을 하지 못해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적으로 적극 안내를 통해 보다 많은 신청을 하도록 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5월에 신청받은 근로장려금을 빠른 시일 내 지급하고, 앞으로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삼겹살·수입산보다 싼 '기막힌 가격'

한우 연휴에 불티나게 팔렸다

소비 촉진을 위해 싼값에 내놓은 한우가 연휴를 맞아 불티나게 팔렸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가 현충일 연휴의 시작인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국 매장에서 판 한우 등심(1등급)의 양은 47t으로, 평소 주말 판매량(1.5t)의 30배가 넘었다.

이마트는 전국한우협회와 함께 이날 하루 동안만 한우 1등급 등심을 정상가보다 30% 싼 100g당 3220원에 팔았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일반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100g당 3290원)보다 싼 값이다.

마찬가지로 100g당 1960원에 내놓은 한우 국거리·불고기도 평소(7t)의 15배에 가까운 103t을 팔았다.

이날 팔린 한우 국거리·불고기의 가격(1960원)은 브랜드 삼겹살(100g당 2950원~2990원)이나 호

주산 척아이플(2180원)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롯데마트도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한우의 판매량이 등심은 지난 주말의 4배가 넘는 315.8%, 국거리·불고기는 10배가 넘는 1078%나 성장했다.

이 회사도 한우 암소등심(2등급·100g)을 평소보다 38% 싼 3600원에, 국거리·불고기는 2000원에 내놓았다.

이 같은 한우 가격 할인 행사는 소비자들에게는 연휴를 맞아 싼값에 한우를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공급자에게는 가격이 떨어짐에도 소비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견디다 못한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다.

한우 사육두수는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이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수준인 300만 두에 육박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불어닥친

국제역 파문으로 소비자들의 한우 선호 심리가 위축됐고, 그 틈을 노린 미국·호주산 쇠고기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판촉에 나서기 시작했다. 유통업체는 한우의 소비시장 점유율이 올해 들어 10%가량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가격 추이도 엇갈려 이마트에서 팔리는 한우등심(1등급·100g)의 가격은 지난해 6월 8250원에서 이달에는 4600원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지만, 미국산 척아이플(100g)은 이달에 1880원으로 1년 전(1480원)보다 27% 가량 올랐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한우 소비가 줄면서 가격도 다음 달까지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지난달부터 대형마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것도 한우 소비 위축의 한 이유"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업 80% "스펙 좋아도 조기 퇴사 가능성 직원 NO"

대한상의 조사

기업 10곳 가운데 8곳꼴로 입사지원자의 '스펙'이 좋더라도 조기 퇴사할 것 같으면 뽑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중견·중소기업 406개사의 인사담당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스펙이 우수한 지원자라도 조기 퇴사 가능성이 크면 채용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전체의 80%였다고 6일 밝혔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74.5%, 중견기업 80.3%, 중소기업 83.1%로 나타났다.

신입직원 채용 때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을 묻자 스펙에 해당하는 경력, 전공 등을 꼽은 기업은 36.5%에 그친 반면 인·적성 분야에 속하는 적극성, 조직적응력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기업은 63.1%를 차지했다. 기업들이 퇴사가능성까지 고려해 신입직원을 채용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이 입사 초기에 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채용한 신입직원의 입사 1년 이내 퇴사비율을 보면 대기업이 13.9%,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23.6%, 39.6%로 집계됐다. 퇴사사유로는 '업무가 전공·적성과 맞지 않아서'가 35.7%로 가장 많았고, 연봉·복지후생 불만족(21.2%), 근무여건 불만족(15.0%), 조직문화 부적응(11.8%)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신입직원의 조기 퇴사를 방지하려고 멘토링(41.4%), 초봉 및 성과 복리후생 개선(33.7%), 연수 및 교육(32.8%), 합숙훈련과 단합대회(19.2%)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연합뉴스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종로5가역 4번출입구 1층(지하철 1호선)

문의전화 : 02)765-9940

찾아오시는 길

↑ 순대항로 ↑ 1층 국제보청기

↓ 청계천로 ↓

종로 5가역 4번 출입구 동대문시장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안과 옆)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